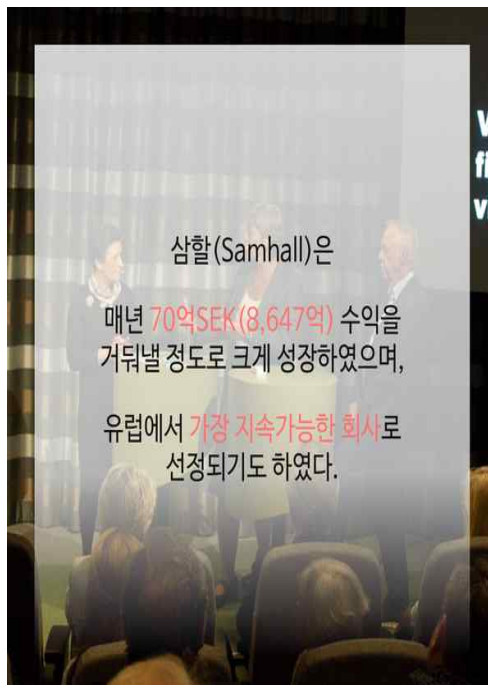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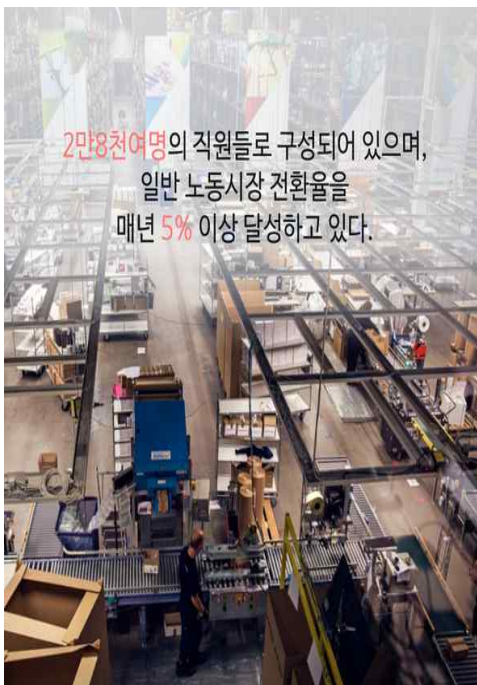


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하여.. (국외사례)

스웨덴의 사회적 기업, 삼할을 소개합니다.



삼할(Samhall)은
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목적으로
설립된 국영기업이며
본사는 스톡홀름에 위치하고 있다.





삼할(Samhall)은
특별한 **3가지 규칙**을
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,



첫째,

훈련된 장애인을 **일반직장**으로
일정비율 전환한다.



둘째,

최소한 **40% 이상**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.



셋째,

이익이 생기면 회사 **일정수익의 7% 이상**을
재투자해야 한다.

스웨덴 국민 여론에서는
84%가 삼할이 존재하지 않았다면
장애인의 취업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.



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,
장애인을 고용해서도 경쟁력이 있다는
사실을 증명한 **삼할!**

우리나라에도

삼할과 같은
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하길 바랍니다.

